

# 삼성생명 보장 확대한 원더풀 종합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은 '원더풀 종합보장보험' (이하 원더풀 보험)을 판매한다.

## 갱신형 구조로 보험료 부담 낮춰

원더풀 보험은 삼성생명이 내놓은 종합건강보험상품 가운데 암·뇌·심장 3대 진단을 동일 보장 설계 시 보험료가 가장 낮다. 갱신형 상품구조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췄다. 60대 이후 발생 빈도가 급증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암·뇌·심장 3대 진단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를 낮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4위 보장

이 상품은 다양한 선택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 빈도가 높은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2018년 전체 수술 통계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지속해서 보장해준다. 전체 2위이자 40대 수술 1위 질환인 치핵 수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또 3~4위인

일반 척추 수술, 충수염 수술은 물론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렴 진단, 당뇨합병증 등 신규 특약도 포함됐다.

## 대상포진, 관절염 수술 등 시니어 보장 및 골절 보장 강화

'시니어 7대 보장 특약'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점차 늘고 있는 대상포진 진단, 3대 인공관절·관절염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고, 추가 특약으로 골절·킥스를 보장하는 등 시니어 질환의 보장도 확대했다. 높은 비용이 드는 인공관절 치환술(어깨관절·고관절·무릎관절)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시니어 계층에 인기가 높은 골절에 대한 보장도 진단비부터 수술까지 보장을 강화했다.

## 당뇨 진단부터 치료까지, 생명보험사 첫 폐렴 진단비 보장

이에 더해 당뇨병 진단 특약의 경우 당뇨병 진단부터 인슐린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고, 최근 국내 사망원인 3위까지 상승한 폐렴은 진단 시 진단비(중등도 폐렴 100만원, 중증 폐렴 1천만원)를 생명보험사 최초로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주보험 기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5년 단위로 갱신(일부 특약 3/5년)되면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원더풀 종합보장보험은 암을 포함한 3대 진단의 경우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시니어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

